

모바일 한계 넘은 'V4'...150개국 참전



'K게임'이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최근 150여 개 국에 출시된 넥슨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V4'. 넥슨 자회사 넷게임즈가 개발한 V4는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한 PC와 함께 영어, 독일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6개 국어...PC 크로스 플레이 OK
넥슨 '던파 모바일' 8월 중 서비스
넷마블 'A3' 해외 출시 준비 박차
엔씨 '리니지2M' 애프터 공략 채비

국내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인 게임사들이 이번엔 해외 시장을 놓고 한판 붙는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하반기에 기존 인기작의 서비스 범위를 해외로 넓히는 한편, 글로벌을 겨냥한 새 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연이은 신작 흥행으로 주목받는 넥슨도 해외 공략에 나섰다. 자회사 넷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V4'를 글로벌

150여 개 국에 24일 출시했다.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한 PC버전과 함께 영어, 독일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모바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터넷 서버 월드'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자율 경제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를 현지화했다.

손면석 넷게임즈 PD는 "국내 이용자로부터 검증된 게임 경험과 모바일·PC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그래픽 품질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고 말했다. 넥슨은 네오플이 개발한 2D 액션RPG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도 8월 12일 중국에 내놓는다. 원작 PC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안착시킨 텐센트가 서비스를 맡았다. 사전등록에 이미 50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참여하며 흥행

청신호를 켜들.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온 넷마블도 고삐를 죄들. 7월 10일 기준 앱애니 데이터를 보면 넷마블은 자회사 게임을 포함한 전 세계 144개 국 앱스토어, 100개 국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상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작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 인기를 끈 모바일 배틀로얄 MMORPG 'A3: 스틸 얼라이브'를 해외 시장에 출시하고,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소재의 신작 'BTS 유니버스 스토리'도 내용을 계획 중이다. 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은 자체 지적재산권(IP) 게임 '세븐나이츠'를 기반으로 한 콘솔 타이틀 '세븐나이츠 타임워러'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자회

사 카바은 모바일 액션 RPG '마블 펠름 오브 챔피언스'를 4분기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고, 켄시타는 디즈니 IP를 바탕으로 한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를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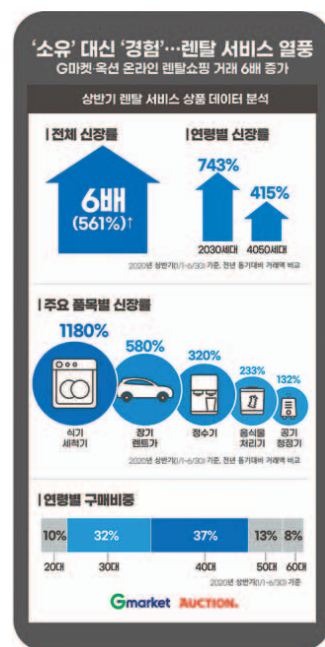
엔씨소프트의 경우 대작 모바일게임 '리니지2M'의 해외 시장 공략 채비를 하고 있다. 연내 아시아 권역 출시가 목표다.

조이시티는 엔드람이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워존'의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전 세계 10억 명의 유저가 경험한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밖에 블루포션게임즈가 최근 '에오스 레드'를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3040세대 '가전 렌탈' 인기

이베이, 온라인 렌탈 서비스 거래액 561% 급증



온라인 렌탈 서비스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의 상반기 렌탈 서비스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561%)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30세대가 743% 신장률을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렌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던 4050세대 역시 거래액이 41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제품이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 아직 절대 수요는 적지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며 지난해보다 거래액이 10배 이상(1180%) 증가했다. 그 밖에 음식물처리기(233%), 공기청정기(132%), 의류건조기(78%), 전기레인지(43%) 등 가전 렌탈 모두 고르게 성장했다. 렌탈 시장의 가장 대표적 품목인 정수기의 거래액은 4배 이상(320%) 증가했으며, 그동안 온라인에서의 구매가 익숙하지 않았던 장바구니도 580% 급증했다.

연령별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37%, 30대가 32%를 차지했다. 박혁 이베이코리아 사업개발팀장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담신청에서 계약까지 언택트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전용관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렌탈 서비스의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600여년 전 창덕궁 증강현실로 재탄생

오늘부터 '창덕ARirang' 서비스

전설 속 동물 '해지'가 나타나 600년 전 왕실 생활상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SK텔레콤은 문화재청, 구글코리아와 함께 한국 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

을 증강현실(AR) 기술로 새롭게 구현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창덕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창덕ARirang'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AR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앱은 구글플레이와 윈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다.

5G 스마트폰이 없는 관람객을 위해 안 내용 디바이스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창덕ARirang은 SK텔레콤의 5G MEC

기반 서비스다. MEC는 클라우드 계입과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초저지연(밀리초) 성능을 높이는 5G기술이다. SK텔레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는 '창덕ARirang 애틱' 서비스도 8월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창덕ARirang 서비스 지원 단말기는 '갤럭시S10 5G', 'V50 5G', '갤럭시노트10+', '갤럭시S20' 시리즈이며,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창덕궁ARirang 앱 사진제공 | SK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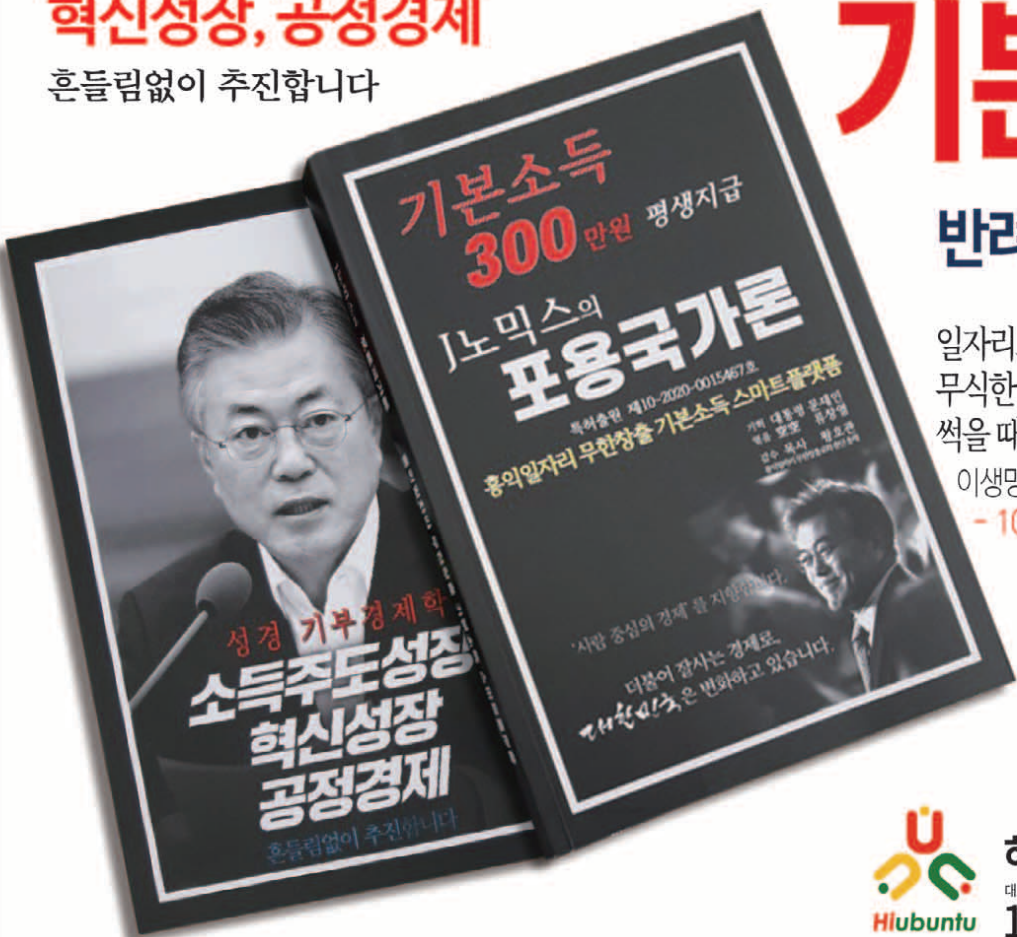
LG유플러스 '마마무의 무무트립' 독점 공개

LG유플러스는 걸그룹 마마무의 여행 리얼리티 '마마무의 무무트립'을 29일 U+아이돌Live를 통해 독점 공개한다. 휴식을 위해 1박 2일 여행을 떠난 모습을 담은 신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다. 마마무 팬덤 '무무'가 여행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다. 매주 수요일 방영되며, 총 6편으로 구성됐다. 본 방송 종료 후 미공개 영상도 U+아이돌Li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씩 때로 씩씩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성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 인류, 반려동물까지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의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자본공유앱APP**, K-비즈, K-플랫폼
□ 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플랫폼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종교재단' 등극!!!

● 고문단 최성규 목사 / 연신령 목사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자 총괄전도사 **호우 류창열** 담당

● 서울 호우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민호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춘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영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김신우 010-2209-1142 / 이승기 010-9725-2789 / 최희남 010-5661-4167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이채영 010-7135-2369 / 백성석 010-7309-1000
민영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화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환 010-4741-7008 / 조희경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학정 010-7712-2202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60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경배 010-3572-4616 ● 인천 김혜덕 010-6258-3510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유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표 정재호 010-6416-1888 ● 이철 허천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아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대표전화
1644-6733